

## VI. 516 B.C. - 성전 건축 완료<sup>1)</sup>

다리오 6년(기원전 516년)에, 성전의 재건이 완공되었다.<sup>1)</sup> 학개, 스가랴와 같은 히브리의 선지자들은 통치자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가 한 것처럼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였다.<sup>2)</sup> 에스라 6:14-15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성전이 완공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육년 아달월 삼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에스라 6:14에서 단서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나머지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된다. 단서는 에스라 6:14에서 다리오와 동격으로 사용되는 '아닥사스다'라는 왕위 칭호인데,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 (다시말하자면, 혹은 즉,)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러한 반대론, 혹은 탐구론적인 히브리식 *와우* 구조의 사용은 오래전부터 히브리학자들에 의해 구약성서의 다른 곳에서도 인정되어왔다. 여기서 아닥사스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 왕위 칭호이자 다리오에 대한 동격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연대의 오기이다.<sup>3)</sup>

### A. 515 B.C. - 위대한 유월절

#### 1. 에스라서의 유월절

그 다음 해인 다리오 7년, 니산 월 14일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포로들의 자녀들이 유월절을 기념하였다(에스라 6:19- 21).<sup>4)</sup> 그레고리력으로 따지면 기원전 515년 4월 14일 수요일에 일어났다. 유월절 기념식과 함께 무교절도 거행되었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레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에스라 6:22. 물론 아시리아 왕은 이전에 아시리아인들이 보유했던 영토를 지배했고, 통치 초기 반란을 일으키는 동안 그것을 다시 정복해야 했던 다리오

1) 유진 폴스티히, [포로기 및 회복기와 역사의 조화], 성경과학연구소 2020, 6장 pp142-146 참고

1세를 지칭하는 말이다.

## 2. 이집트 엘레판티네의 유월절

다리오 왕 5년(기원전 516년)에 아스완 맞은편 나일강의 첫 번째 폭포에 있는 섬인 엘레판티네의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명령한 '유월절 파피루스'가 엘레판티네 파피리 가운데 발견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다리오 왕 5년은 페르시아식 추정이고, 히브리식 추정으로는 다리오 6년에 해당한다. 다리오 6년에 엘레판티네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다리오 7년에 열릴 다음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조서가 내려왔다. 두 두 축제는 동시에 발생하였을 것인데, 이는 엘레판티네의 문서가 다리오 2세가 내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줄 것이다. 또한, 이는 그 왕이 베히스툰 비문을 세운 해이다. 유월절 파피루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의 [동료 예도]니야와 그의 동료들 [유]대의 수[비대]인 너의 형제 하나[니아에게]. 나의 형제들의 복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찾으실 것이다]. 이제 다리오 왕 5년인 올해, 아르사[메스가 말하길, "유]대의 [수비대를 위한 무교절 축제를 허가하라]" 그리하여 [니산 월의 1]4일을 헤아려 [유월절을 축]하하는가 하면, [니산 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기념한다]. (의식에 따라) 몸을 정갈히 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15일이나 21일에는 일하지 말고] 맥주를 [마시지도 말고], 니[산월 14일] 해질녘부터 21일까지는 효모가 들[어있는] 어떠한 것을 [먹어서도 안된다. 구할 수 있는 모든 발효된 것들을] 벽장에 가져와 그 낱자들 사이에 봉인해라. [다리오 왕에 의해] 나의 동료 예도니아와 유대 수비대인 너의 형제 하나[니아]에게 [내려진 명령이다].<sup>5)</sup>

일부 학자들은 이 문헌이 명백히 지역사회의 수장으로 거론되는 예도니야가 '야호의 신전을 재건하기 위한 허가 청원서'를 포함한 파피루스에서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는 근거로 다리오 1세가 아니라 다리오 2세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파피루스에는 고위 제사장인 요한이 언급되지만, 본 연구는 그가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니[야]는 느헤미야 1:2의 하나니와 동일인물인 것으로 보이며, 두 사건에서 모두 공식적이고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에스라 7장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에스라의 저자는 페르시아 왕위 칭호인 아닥사스다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페르시아어 '다리오'의 사용을 중단한다. 그러나 그는 이미 에스라 6:14의 단서를 독자에게 주었다.

아닥사스다가 다리오 1세라는 또다른 증거는 '왕의 7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이다(에스라 7:8). 연대기에는 공백이 없지만 연대기는 계속된다. 이는 에스라의 연대추정에 있어서 중요하다.<sup>6)</sup>

### 3. 성직자 수도회가 시작되었다

성직자 수도회가 설립되었고, 첫 번째 유월절이 다리오 7년에 시작되었다(에스라 6:18-19). 첫 번째인 여호야립은 기원전 3486년(기원전 515년) 니산 월 10일에 시작하였다. 이 희귀한 연대적 일치는 연대를 확인시켜준다.

### B. 515 B.C.- 에스라의 귀환

에스라는 다리오 1세 7년에(기원전 514년) 그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짐꾼들과 느디임 사람들(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은 대략 900마일정도였을 것이다.

에스라 7:8-9의 연대기적 언급에 따르면, 이 여정은 아닥사스다(다리오 대왕) 7년 니산월 1일부터 아브월 1일까지 4개월동안 지속되었다. 그레고리력으로는 기원전 515년 4월 1일 목요일부터 기원전 515년 7월 28일 수요일에 해당할 것이다.

신전이 봉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빌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다른 지역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생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영적인 희망을 갖게 되기를 갈망했다. 유대민족의 지도자이자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에스라는 포로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리오 1세에게 호소했다. 왕은 에스라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아람어로 된 아닥사스다(다리오 1세)의 서한은 에스라 7:11-26에 기록되어 있으며, 에스라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뿐 아니라 신전에 대한 후한 지원도 제공한다.<sup>7)</sup>

에스라에게 보내는 아닥사스다의 서신에는 왕의 '일곱 자문관'에 대한 언급에 주목하라(에스라 7:14). 이러한 언급은 그 왕이 다리오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그의 자문관들은 에스라 8:25에서 다시 언급된다.

### C. 왕실금고를 사용한 에스라

에스라는 아닥사스다(다리오 1세)와 유대민족 공동체가 보낸, 예루살렘 성전에 바칠 제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에스라는 제물을 구하는 데 그것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고, 나머지는 에스라와 그의 동료들이

원했던대로 쓸 수 있었다(에스라 7:17-18). 또한 필요하다면 다리오는 필요하다면 시리아 지방에 있는 왕실의 금고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에스라에게 주었다(에스라 7:20).

에스라의 특징은 느헤미야만큼 정확하게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에스라7:27에서 다음과 같은 신에 대한 폭발적인 찬사에서 드러난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와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 구절은 에스라 마지막 부분의 자전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 D. 에스라-느헤미야 일치

##### 1. 에스라-느헤미야 연대기의 일치

에스라 6장의 연대기는 에스라 7장에서 군주를 위한 칭호변경으로 이어진다. 만약 아닥사스다가 다리오 1세라고 간주된다면 연대기는 계속되어 에스라-느헤미야서 전반에 걸쳐 훌륭한 방식으로 딱 들어맞게 된다.

다음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내용의 글이다.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 손이요 아히둡의 육대손이요 아마라의 칠대 손이요 아사랴의 팔대 손이요 므라웃의 구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십대 소닝요 웃시엘의 십일대 손이요 복기의 십이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십삼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십사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십오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십육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칠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칠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 7:1-10

바빌론유수 이후의 성서 등장인물 중 에스라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없다. 보다시피 그는 고위 제사장 아론의 혈통으로부터 나온 히브리 사제들의 계보를 가지고 있다.<sup>8)</sup> 그는 또한 모세의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 사본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율법을 해석할 수 있었던 서기관이었다. 포로기 이후에는 예언력이 쇠퇴하는 듯 했고 율법의 권위가 가장 중요해졌다. 에스라 7:10에 따르면 에스라가 결심한 것은 1) 주의 율법을 구하는 것, 2) 주의 율법을 행하는 것, 3)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것, 세 가지였다.

## 2. 다리오의 통치와 에스라-느헤미야의 통합

히브리 율법에서 에스라-느헤미야는 제 3부작인 글의 일부이며<sup>9)</sup> 에스라-느헤미야의 내용이 연대기적으로 역대기서(상하)의 뒤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서 앞에 위치해있다. 더욱이 에스라-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에서 한권의 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에스라서의 후반부에는 마지막 맛소라 서의 내용이 부족하지만 두 책 모두 느헤미야서 말미에 완전한 구절의 수가 주어지며, 합본에 해당하는 중간 구절도 주어진다. 이 내용은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에스라 7-10에서 시작된 에스라의 회고록은 느헤미야 8-10에서 완성된다.<sup>10)</sup>

에스라-느헤미야서는 포로들의 귀환과 성전의 재건(*ח/ג* Ezra 1 - 6), 그리고 종교적으로(에스라), 물리적으로(느헤미야)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있어 지도자들의 노력(*ח/ג*. 에스라 7 - 느헤미야 13)과 같이 복구 기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의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아닥사스다(다리오 1세)의 치세는 에스라-느헤미야 연대기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 3. 에스라-느헤미야의 연대기에 제안된 해결책

과거에 에스라-느헤미야 연대기는 성서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문제가 되어왔다. 학자들은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했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의 해결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David Noel Freedman은 에스라-느헤미야에 관한 성서 연대기의 현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에스라-느헤미야 시대와 관련한 연대기적 문제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채로 남아있다..."<sup>11)</sup>

학자들은 몇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첫째로, H. H. Rowley는 아닥사스다 1세 7년(기원전 457년)에 에스라를, 20년(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배치하는 전통적인 순서를 뒤바꾸는 것을 선호했다.<sup>12)</sup> 두 번째로 A. Van Hoonacker는 에스라가 느헤미야의 뒤를 이었다는 견해의 주된 주장자이다. 그는 에스라의 연대가 아닥사스다 2세 7년(기원전 397년)이라고 제안한다.<sup>13)</sup> 이 견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완전한 분리를 가져왔다. 셋째, William F. Albright는 느헤미야-에스라 순서에 찬성하는, 설득력있는 주장과 그들의 임기가 겹친 성서의 전통 모두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sup>14)</sup> Albright는 에스라가 작업을 시작한 것의 연대를 아닥사스다 1세 37년(기원전 427년)으로 추정했다. 그는 맛소라 성서에서의 제 7년을 더 큰 수에 대한 서기의 오류로 간주하였다(에스라 7:7). David Noel Freedman은 에스라의 연대기 체계에 관한 세 번째 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시기에 대한 에스라의 연대는 성서 출처로부터 가능한 모든 증거뿐 아니라 엘레판티네 파피리에 나오는 5세기 말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한 부수적인 증거와도 잘 들어맞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 자체는 원문의 근거가 없으므로 압박을 가해서는 안된다."<sup>15)</sup>

그러므로, 전통을 따르는 학자들에 의하면 에스라는 제 2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기원전 515년) 바빌론 유수 이후 공동체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그러면 에스라서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침묵으로 넘어간다. 마지막으로 아닥사스다 7년(기원전 457년) 바빌론에서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설명과 함께 7장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재개된다. 이 시점에서 학자들이 나뉘어진다. 어떤 이들은 '아닥사스다'를 아닥사스다 1세 롱기마누스(기원전 464년 - 기원전 423년)으로 정의한다. 일부 학자들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으로 아닥사스다 7년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sup>16)</sup> 다른 학자들은 문헌에 증거가 없는 그의 37년째 해를 선호한다.<sup>17)</sup> 다른 이들은 '아닥사스다'가 아닥사스다 2세 멤논(기원전 404년 - 기원전 358년)이라고 주장한다.<sup>18)</sup> 그의 통치 7년차(기원전 397년)는 에스라가 느헤미야 뒤에 오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자들이 '아닥사스다'가 다리오 1세의 페르시아 왕위 칭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고 본다. 이 개념에 대한 이해는 에스라-느헤미야 연대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이 해결책은 전통적인 에스라-느헤미야 순서의 반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서로 중복되는 경력들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 **4. 느헤미야의 동시대인에게 쓰여진 엘레판티네의 편지**

이집트에 있는 엘레판티네라는 섬의 유대인 식민지에서 쓰여진 몇 통의 편지들은 에스라-느헤미야 뿐 아니라 모든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이 편지들은 유대식과 이집트식의 두 가지 달력 체계로 연대가 추정되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다. 이중연대의 특징은 가능한 한 연대만 맞는다는 것이다. 유대 음력 유월절에 대한 그레고리력 날짜가 유사하다. 유대식 달력은 음력에 기초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태양력 해 내에 항상 일시적이다.



엘레판티네의 서신은 25개가량 있다. 5개를 제외한 모든 것은 이중연대로 되어있으며 기원전 471년부터 기원전 351년까지의 날짜를 포함한다. 모든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다리오 1세를 제외한 모든 왕들의 연대를 포함한다. 다리오로 가는 편지들도 보존되어 있지만 이중연대는 아니다. 초기 서신에서 다리오 1세와 서신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후기 서신들을 쓴 사람들의 조상들이며, 에스라-느헤미야의 서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과 동일인물이다.

A. Cowley의 기원전 5세기 아람 파피루스에서 아람 파피루스 30-32번은 다리오 17년, 18년(기원전 505-504년)에 쓰였다. 이 편지는 아닥사스다가 다리오라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소개될 여러 편지들 중 하나이다.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유대	이집트 엘레판티네
유대 총독 비그왜	예도니아
제사장 요하난	타락한 자 Waidrang
하나니	그의 아들 네파얀
오스타네스	
들라야와 셀레마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아들	

a) 비그왜는 첫 번째 무리와 함께 돌아온 선두의 사람 중 하나였고 (에스라 2:2) 아닥사스다 13년 무렵에는 대가족의 수장이 되었다(느헤미야 7:19).

b) 요하난은 페르시아 사람 다리오의 시대에 엘리아십, 요아다, 얏두아와 함께 대제사장이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다리오 말기 당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느헤미야 12:22). 더욱 중요한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생애 동안이었다는 것이다(앞서 언급한 책에서, v. 26).

c)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형제로(느헤미야 1:2)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기원전 503년에 호소를 하러 갔다. 그의 호소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 1:3). 이집트에서 온 요구와 그의 말을 비교해보면, "요새 엘레판티네 섬의 성전은 파괴되었다. 그러자 네파얀은 다른세력과 함께 이집트인들을 이끌고 나갔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엘레판티네의 요새로 와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을 파괴하고 그곳의 돌기둥을 부수었다." (아람 파피루스 No. 30).

d)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엘리아십과 동시대 인물로, 느헤미야 성벽을 건설하는 것에 반대하였다(느헤미야 3:1, 4:7). 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는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였고, 그 죄로 느헤미야는 그를 내쫓았다(느헤미야 13:4, 28).

요컨대 이 서신은 다리오 시대에 에스라-느헤미야의 제사장들이 모두 봉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그것은 다리오가 아닥사스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한다. 이집트로부터의 통신을 담당한 이집트 남성들은 그 뒤를 따른 모든 서신들을 쓴 사람들의 조상들이다.

연대가 추정되지는 않으나 비그왜와 델라야로부터 온 한 응답서신은 파괴되었던 이집트의 성전 건축을 인가하고 있다. 아마도 이전 편지와 같은 해에 쓰였던 것이다.

- 
- 1) 기원전 515년 2월 3일(그레고리력)에 기원전 588년 에 있었던 파괴 이후 70년여년 만에 완공되어 커다란 기쁨 속에서 헌납되었다(에스라 6:13-18). 새로운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작았다. 이스라엘은 먼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던 왕들과 함께 번영하고 주권적인 국가가 더 이상 아니었다. 대신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한 부분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2 성전은 바빌론 유수 이후 이스라엘의 집결지가 될 것이었다.
  - 2) 스톱바벨은 조용히 정치적인 현장에서 지나간다. 그는 90세가 넘었다. 아마도 페르시아인들은 그의 정치적 목표를 두려워했고, 그를 잠재적인 반란자로서 제거했을 것이다. 페르시아인들은 대체사장들인 예수아와 그의 후계자들을 통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유대인들의 메시아적인 희망을 들은 페르시아인들은 그들의 혈통을 다윗왕까지 추적한 세속적인 왕자들보다는 제사장들을 통해 일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느꼈다.
  - 3) 아닥사스다를 다리오와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학자들은 반드시 에스라 6:14의 연대의 오기를 인정하고 왕이 포함된 것을 주장해야한다. 왜냐하면 훗날 그가 성전을 더 아름답게 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4) 다시 한번,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상 또 다른 사건 후에 기념되었다(민수기 9:5; 여호수아 5:10; 열왕기하 23:21 ff.; 역대기하 30). 유월절은 모세의 율법 안에서 한 해의 시작을 알렸다(출애굽기 12:2). 그러므로 히브리력에 따르면 성전 헌납식은 다리오 6년이고, 유월절 축일은 다리오 7년이 된다.
  - 5) James B. Pritchard, 편집, *구약성서와 관련된 고대 근동 문서*(뉴저지, 프린스턴: 프린스턴대학교 출판부, 1969), p. 491. Cf., A. Cowley, *기원전 5세기의 아람어 파피루스*(독일 Osnabruch: Otto Zeller, 1967), pp. 60-65.
  - 6) 에스라의 날짜에 관해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일부 매우 유능한 학자들이 그 문헌이 혼란에 빠져있고 느헤미야가 에스라 전에 와야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의 중보과 구약성서에 관한 논문* (옥스포드: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1965), pp. 131-159에 나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연대기 순서”에 관한 H. H. Rowley의 견해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히브리 성경의 맛소라 문헌에서 주장되는 전통적인 순서를 따른다. 전통적인 견해는 에스라-느헤미야의 연대순서와 잘 들어맞는다.
 

에스라서(7장)에 나오는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 2성전의 헌납(기원전 525년)과 아닥사스다 1세 7년(기원전 457년)에 에스라가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것 사이에 50년 이상이 침묵 속에 지나갔다고 추정할 것이다. 이 상황을 가정하며 Gleason L. Archer, Jr.는 다음과 같이 쓴다.

“에스라 7:1에서 언급된 아닥사스다가 아닥사스다 1세 룡기마누스라고 가정했을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기원전 457년(왕의 일곱 번째 해. 에스라 7:8)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에스라의 일은 20년 혹은 기원전 445년까지 나타나지 않는 느헤미야 보다 12년 전에 시작되었다. 에스라 자신이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이름을 딴 대부분의 책을 썼다.” *구약성서 연구개론* (시카고: Moody Press, 1977), p. 411.

또한 William F. Albright는 이전에 아닥사스다 2세 므네몬(기원전 404년 - 기원전 359년)의 시대에 에스라를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느헤미야 8:2와 같은 구절들을 꽤 허황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언급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동시대 인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후에 Albright는 이 이전의 입장에서 벗어났다. 그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에스라의 날짜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정보를 들었다. 가장 최근의 증거는 아닥사스다 37년 즉, 기원전 428년 경에 있었던, 혹은 그것에 대한 에스라 임무의 날짜를 지지한다. 당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그는 에스라의 회고록에서 특별히 언급된 것이 아니며, 증거가 상충된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의 종교 조직을 개혁하려는 그의 계획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준 왕실의 칙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Albright는 L. Finkelstein, *유대인들*(뉴욕: Harper and Row, Publishers, 1955), p. 53에서 인용된다.

## 6장 - 주석

- 7) 다음은 에스라 휘하의 귀환을 허락하는 왕의 서신이다. 한때는 눈에 띄게 유대인같은 어조와 극히 관대한지시 때문에 이 서신의 진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유대 종교 부서 장관'이라는 공식 직책에 있는 에스라가 편지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시대의 문서들은 페르시아 군주의 관대함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고레스가 있다. 그러한 관대함은 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불해야 할 작은 대가였다. 다리오 대제는 고레스의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아람어로 된 서신으로도 알 수 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유대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밧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제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전 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좇아 쓰시며 네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나 곧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 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일백 달란트까지, 밀은 일백 고르까지 포도주는 일백 바가지, 기름도 일백 바가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징배하거나 가산을 적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에스라 7:12-26

- 8) 에스라의 계보는 역대기상 6:3-15의 자료와 비교할 수 있다.

- 9) 히브리 계율의 세 개로 나누자면 1) 율법, 2) 선지자들, 그리고 3) 글이다.

- 10) 에스라-느헤미야를 두 권의 책으로 나눈 것이 서기 15세기까지 히브리 성서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보아하니 3세기에 기원을 둔 기독교계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11) David Noel Freedman,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연대기' G. Ernest Wright, 편집, *성서와 고대 근동*(뉴욕, 가든시티: Doubleday & Company, Inc., 1965), p. 279.

- 12) H. H. Rowley, *주의 종부과 그 외 논문*(런던: Lutterworth Press, 1952), pp. 131-159.

- 13) A. van Hoonacker, "느헤미야-에스라의 연대기적 연속성La succession chronologique Nehemie-Esdras," *Revue Biblique* XXXII (1923), pp. 481-494; XXXIII (1924), pp. 33-64.

## 6장 - 주석

---

- 14) Albright, *간추린 이스라엘 역사(The Biblical Period from Abraham to Ezra)* pp. 90-96.
- 15) Freedman, *앞서 언급한 책에서*, pp. 279-280.
- 16) Gleason L. Arcer, Jr.는 에스라 연대기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요약한다.  
에스라 7:1에서 언급된 아닥사스다가 아닥사스다 1세 롱기마누스라고 가정했을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기원전 457년(왕의 일곱 번째 해. 에스라 7:8)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에스라의 일은 20년 혹은 기원전 445년까지 나타나지 않는 느헤미야 보다 12년 전에 시작되었다. 에스라 자신이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이름을 딴 대부분의 책을 썼다. (에스라 7:10의 사용에 주목하라.)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귀환자 명단 양식까지 포함한 느헤미야 회고록(즉, 느헤미야서)을 최종본에 분명히 포함시켰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의 라이브러리 편의를 이용하여 아마도 같은 기간의 연대기를 구성했을 것이다." *구약성서 연구 개론*, p. 411.
- 17) John Bright는 '일곱번째 해(에스라 7:7 f.)는 다른 숫자에 대한 오류이며 가장 그럴 듯한 것은 서른 일곱 번째 해'라고 가정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궁정에 돌아온 그 명시되지 않은 기간에(느헤미야 13:6) 445년부터 433년까지 총독이었다는 견해를 받아들인다. 428년 경 에스라가 도착한 그 무렵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마도 전에 이미 그랬듯, 변절자, 배교자들과 충돌하고 있었다. 따라서 에스라의 일은 이와 같이 느헤미야의 재위 기간 동안에 이뤄졌다. 본문에서 전개되는 이 견해는 우리가 에스라의 개혁과 느헤미야의 개혁의 관계가 지속된 문제를 그럴듯한, 증거에 충실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한다. 두 사람이 진행하는 개혁들은 어느정도 함께 진행되었고, 같은 지점으로 수렴되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편에게 말하고 공을 다룬다. 연대기의 저자는 예상한대로 에스라에게 공을 주었다." *이스라엘의 역사*, p. 386.
- 18) Cf., W. O. E. Oesterly, 그리고 Theodore Robinson, *이스라엘의 역사* (런던: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1932) Vol. II, pp. 114-118.